

# 체형에 따른 선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I

A study on the visual effects of the line according to body shapes I

영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박 채 련

Dept. of Clothing & textiles yeungnam Univ.  
*Doctoral course : Chae ryun park*

## 〈목 차〉

I. 서 론	III. 결론 및 분석
II. 연구 방법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differences of visual effects for location the york line. According to three types of body shapes(average, small & thin, small & fat)for location of the york line, We investigated the visual effects and optical illusion by slider and the results of data, which analized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ngge, are as follows.

1. In the A.V(average)body shapes, design D1 was showed to be most remarkable in terms of optical illusion and design D2 was showed to be prefer in terms of visual sight.

2. In the S.T(small& thin)body shapes, design D1 was showed to be most remarkable in terms of optical illusion but from the side view of looking thinness, design D4 was showed to be negative and from the preference of visual sight, design D4 was showed to be most negative.

3. In the S.F(small& fat) body shapes, design D1 was showed to be most remarkable in terms of optical illusion and design D3 gained the bettle of superiority from the side view of looking tallness and design D3 was showed to be most negative in terms of the preference of visual sight.

## 1. 서론

의복에 있어서의 선은 외양 전체를 지배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복은 선의 구성으로써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잘 다루는가, 잘 다루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입은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게도 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게도 한다. 또한 의복에 따라 체형이 달라 보이는 것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체형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으며,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체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감출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의복구성시에 사용되는 선은 움직임을 내포한 살아있는 선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입체적인 인체에 입혀진 디자인 선은 실제로는 변화된 표현을 한다는 것을 예상하고서 다루어야 한다.

또한 복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평면적인 옷감을 입체적인 인체 위에 맞도록 재단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아트(Dart)나 솔기(Seam)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다아트나 솔기를 박으면 많은 선이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선은 기능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장식적으로 이용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의복의 시지각 중 선에 관한 선행연구로 Sailor<sup>1)</sup>와 Baer<sup>2)</sup>는 의복디자인 선의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의 디자인 선에 대한 지각은 선의 요인(선의 방향, 특히 수직 방향의 지각), 유행요인(유행, 특히 옷단 선의 지각), 실루엣의 요인(수평, 수직선에 의해 형성되어진 외형 특성을 나타내는 선의 지각), 세부 요인(의복의 사선 및 세부를 나타내는 선)의 지각 등의 네 요인으로 부터 이루어지고 의복에 대한 경험이나 훈련이 이러한 선의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이<sup>3)</sup>는 의복 디자인 선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성인 여자 표준체형에 근접한 바디 스탠드(Body stand)를 사용하여 다양한 분할선을 사용하여 각 항목에 따른 관능검사를 연구 보고하였다. 류<sup>4)</sup>는 현대의 이상적 신체형은 아주 마르고 키가 큰 것임을 밝혔고, 실험디자인들을 CAD를 이용하여 표준 신체형의 여성이 입고 있는 자극물로 제작하여 착의평가 실험을 실시하

여 수평, 수직분할과 스커트 길이, 줄무늬 등에 따라 착시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체형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를 본 경우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착시적인 면이 요구되는 작고 뚱뚱한 체형, 작고 마른 체형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 체형 및 착시가 요구되는 작고 뚱뚱한 체형, 작고 마른 체형을 대상으로 가로선의 분할 위치를 변화시켜, 실제로 제작된 의복이 체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선의 시각적 효과가 입체적인 표현방식에 되어 실제의 의복착용 이미지를 나타내어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의복구성학 및 디자인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발전을 위해 의의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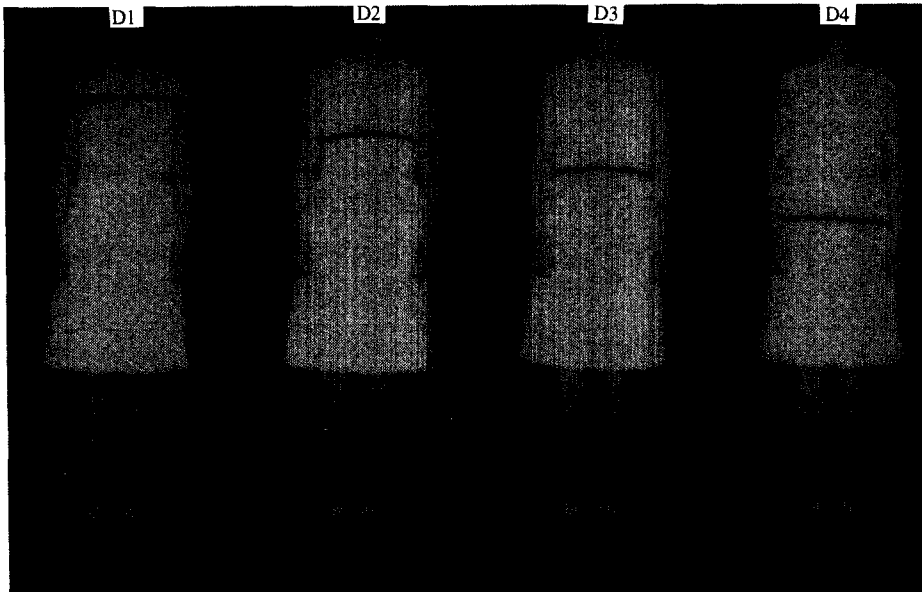
### 1. 실험 디자인의 선정

1995년 4-6월에 의류학 전공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및 의복 구성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에 관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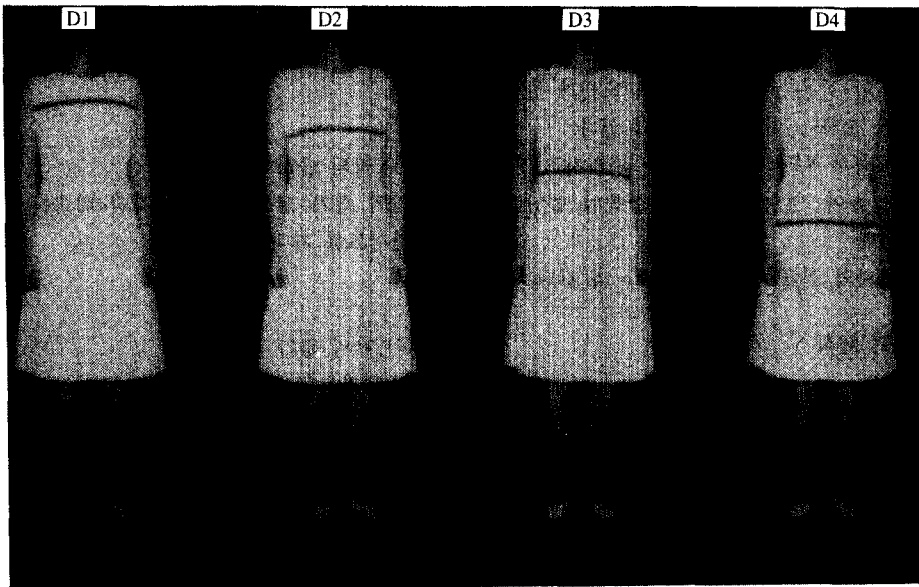
#### 1) 실험디자인 추출

수집된 많은 제안 및 선행연구<sup>4,5)</sup> 중에서 정해진 디자인 변인들은 예비조사를 통해 경우에 따라 4단계씩 변화를 주었다. 이는 디자인이 의복에 사용될 수 있는 정도에 한계가 있고, 단계를 더 많이 만들어 실험 디자인들을 정밀하게 변화시키면 평가자의 변별력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실험 디자인을 Picture 1, 2, 3에 제시하였다. 모든 체형에서의 디자인 선의 위치는 동일하게 하였다. 즉 디자인 D1은 앞품선 위치, D2는 허리선 위 10cm, D3는 허리선 제 위치, D4는 허리선 아래 10cm로 하였다.



Picture 1. 표준(A.V)체형에서의 요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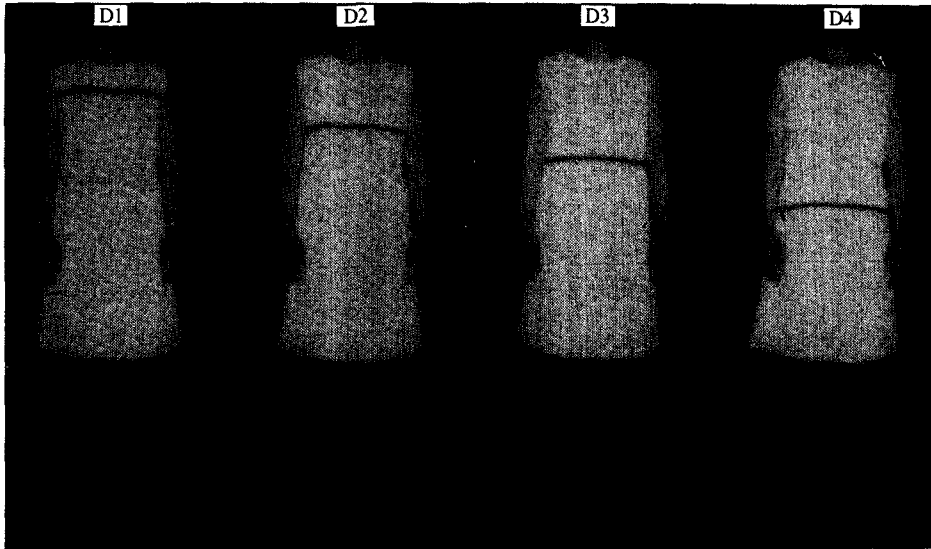
Picture 2. 작고 마른(S.T) 체형에서의 요크선

## 2. 피험자 선정

1995년 9월- 11월 동안 본 연구의 피험자 선정을 위하여, 체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미혼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중 및 신체의 둘레항목, 높이항목 등 실험

복 제작에 필요한 항목을 측정하였다.

예비조사 후 본 연구의 피험자 선정을 위하여 1995년 12월에 <국민 체위 조사 보고서>에 조사된 신장, 체중을 비롯한 여러 계측치가 표준치의 범위에 들어가는 피험자(A.V)를 기준으로 정삼호<sup>1)</sup>의 연구를



Picture 3. 작고 뚱뚱한(S.F) 체형에서의 요크선

토대로 여러체형 중 의복 착용 시 착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키에 따른 체형(S.T)과 뚱뚱한 체형(S.F)에 속하는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이 중 S.T체형과 S.F체형에 속하는 피험자는 키, 어깨높이, 허리높이, 엉덩이 밑높이 항목이 동일한 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피험자의 신체 치수는 <표 1> 과 같다.

### 3. 실험 의복 제작

#### (1) 소재

실험복에 사용된 직물은 유백색의 면 100% 로 하였다.

#### (2) 원형선정

본 실험복에 사용된 원형은 선행연구<sup>7)</sup> 및 예비조사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된 박혜숙<sup>8)</sup>의 원형을 사용하였다.

기본 실험복은 전체의 디자인을 단순한 원피스(One-piece)로 하였으며, 디자인을 변형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제작하였다. 여유량은 선행연구<sup>9)</sup>를 토대로 Bust 5 cm, Waist 6 cm, Hip 3.5 cm로 하였다. 길

이는 무릎길이(무릎밑 5cm)로서 일정한 조건으로 하였다.

#### (3) 착의 슬라이드 제작

착의 평가 실험이라는 시각적 비교를 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 (4) 착의 평가 실험

##### 1) 평가위원 선정

예비조사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의 평가치에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며, 평가실험은 판단력이 비교적 정확해야 함으로 의류학 전공 4학년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전문 평가위원을 선정하였고, 비전공 여학생 20명을 비전문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Berlyne<sup>10)</sup>에 의하면 복잡한 시각 대상에 대한 반응은 유사한 연령층 내에서 남녀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Winaker, Canton & Wolins<sup>11)</sup>는 남녀의 시각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성에 대한 비교는 생략 하였다.

##### 2) 평가실험 절차

먼저 평가위원들에게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해시키

〈표 1〉 피험자의 신체치수

체 형 \ 항 목	A.V 체형	S.T 체형	S.F 체형
몸무게	52.0	41.0	56.8
키	159.0	153.0	153.0
어깨높이	128.6	125.0	125.0
허리높이	96.9	94.0	94.0
엉덩이 밑높이	69.0	64.3	64.5
등길이	39.5	36.5	36.5
소매길이	49.5	49.0	49.0
밑위앞뒤길이	68.3	63.5	69.0
윗가슴둘레	81.6	79.5	87.0
가슴둘레	82.1	77.0	90.0
밑가슴둘레	72.8	70.5	83.0
허리둘레	64.9	62.5	75.0
엉덩이둘레	89.3	89.0	93.4
가슴두께	20.5	18.2	22.8
배두께	19.2	17.5	22.0
엉덩이두께	20.7	18.1	21.8
어깨너비	35.0	34.0	40.0
뒤폭너비	36.8	35.2	38.4
가슴너비	26.2	25.3	28.3
허리너비	22.9	21.0	25.0
엉덩이너비	31.6	30.7	35.1
Rohre지수	1.29	1.14	1.58

고 처음 부터 7초간격으로 슬라이드를 보여 주면서 의복의 느낌을 평가하게 하였다. 이 때 슬라이드의 제시 순서는 무선화 하였다. 또한 화면의 왜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 슬라이드는 스크린에 직선방향으로 투영되게 하였고, 스크린과 환등기 사이에는 2-3m 거리를 확보하였다.

(5) 자료분석

실험디자인이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의 경향이 유의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7점척도로 조사하여 분산분석(AVOVA)을 실시한 후 디자인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던컨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통계 분석 패키지 프로그램인 SAS/PC를 사용하였다.

Ⅲ. 결론 및 분석

1. 체형에 따른 선의 시각적 효과

(1) 표준체형(A.V 체형)

가. 키가 커 보이는 효과

분산분석 결과 선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유의수준 0.001 에서 F 값 8.04로 시각적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에 제시한 평균값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디자인 D1이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컸으며 디자인 D2와 D3, D4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낮았다. 즉 평균값이 D1 > D2 > D4 > D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허리선이 제위치에 있는 경우보다 하이 웨이스트와 로우 웨이스트의 경우가 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류<sup>4)</sup>는 표준체형을 이용하여 디자인 D2와 같은 경우가 가장 키가 커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는 컴퓨터 상에서 디자인선을 삽입하여 그린경우이므로 실제로 선을 구성하여 착용한 본 연구와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면적인 경우에는 이<sup>13)</sup>는 Picture 4의 A, B, C 중 사각형 A가 제일 길어보인다고 하였으며, 이는 동일한 면을 가로선으로 분할하여 두 개의 면을 나눌 때, 가로선의 위치에 따라 분할한 후 남는 세로선의 길이가 긴면이 분할한 후 남는 세로선의 길이가 짧은 면에 비하여 길어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스커트와 상의가 차이가 많을수록 커 보인다고 하였는데, 하이 웨이스트의 경우는 이 이론과 일치하였다. 사각형 C는 보통 허리선(Waist line)이며 3:5의 비율을 이루고 있어서 인체를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의복에 적용될 경우에는 그다지 시각적인 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D도 역시 3:5의 비율로 단순히 사각형의 비율로 지각할 때는 상의와 스커트의 비율이 차이가 많아 나도록 한다면 분명히 키가 커 보인다. 그러나 사각형이 아니라 인체 위의 분할이므로 상체는 길어보이지만 상대적으로 하체가 짧아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체가 길어보인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길어보이면 전체가 길어보이게 되는 기하학적인 착시와는 달리 상체가 길어보이는 것으로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례적인 면이 완벽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곧 시각적인 면으로도 만족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평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디자인 이론은 실제적인 의복착용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이<sup>13)</sup>는 Picture 5에서 그림 C가 가장 커 보이고 B) > A)의 순이라고 밝힌 것과 본 연구 결과와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와와의 비교에서는 <표 2>에

서와 같이 키가 커보이는 경우에는 유의수준 0.001에서 F 값 13.17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날씬해 보이는 경우는 유의수준 0.01에서 F 값 7.74로, 시각적 선호면에서는 유의수준 0.01에서 F 값 8.08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키가 커보이는 경우 (4.225 > 4.075)와 날씬한 경우(4.175 > 3.950)는 비전문가가 평균값이 더 높음을 알 수 있고, 시각적인 선호에서는 전문가가 평균값(4.450 > 4.487)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각적인 지각 능력이 지각하는 대상에 더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진 사람과 보다 적은 지식을 가지고 대상을 지각하는 사람사이에는 그 반응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을 통해서 지각하는 능력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Arnheim<sup>14)</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수 있으며, Baer<sup>15)</sup>의 의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의복의 디테일이나 실부엌을 지각할 때 서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Morgan<sup>16)</sup>은 사물에 대한 지각은 부분적으로 학습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는 이러한 학습된 지식에 의해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

분산분석 결과 선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유의수준 0.01에서 F 값 3.99로 시각적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에 제시한 평균값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디자인 D1과 D2, D4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컸으며 디자인 D3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낮았다. 즉 평균값이 D1 > D2 > D4 > D3의 순으로 차례로 날씬하게 보이는 경향은 사각형이 길어보일수록 좁아보이는 상대적인 지각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 시각적 선호의 효과

분산분석 결과 선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유의수준 0.01에서 F 값 3.96으로 시각적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에 제시한 평균값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디자인 D2, D1, D4가 시각적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디자인 D3는 시각적 선호가 낮았다. 이는 디

자인 D3가 A.V 체형의 의복에 적용될 경우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착시적인 면이 우수하게 나타난 디자인 D1, D2, D4가 시각적으로 선호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2) 작고 마른 체형

가. 키가 커 보이는 효과

분산분석 결과 선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유의수준 0.001에서 F 값 19.34로 시각적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에 제시한 평균값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디자인 D1이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컸으며 디자인 D3와 D4가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S.T 체형에는 허리선이 제위치에 있는 경우와 로우 웨이스트의 경우 보다 하이 웨이스트의 경우가 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평면적인 경우에는 Picture 4의 D는 3:5의 비율로 사각형 자체는 보기 좋지만 의복에 적용되면 상체의 길이를 강조하게 되어 키가 작아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체가 길어보인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길어보이면 전체가 길어보이게 되는 기하학적인 착시와는 달리 상체가 길어보이는 것으로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디자인 D4는 상체의 길이가 길어보임에 따라 작은체형에 하체가 더욱 짧아보이게 되어 키가 더욱 작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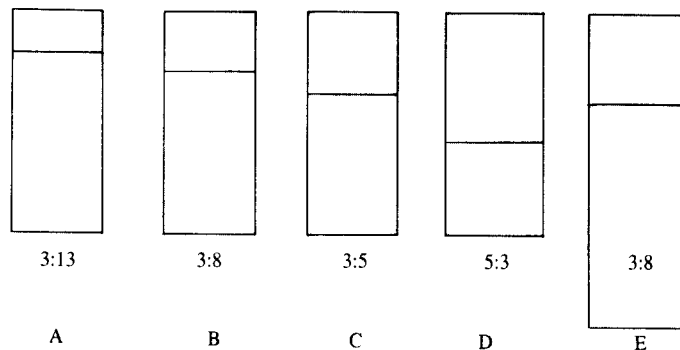
된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와와의 비교에서는 〈표 3〉에서와 같이 키가 커보이는 경우에는 유의수준 0.01에서 F 값 7.50으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날씬해 보이는 경우는 유의수준 0.01에서 F 값 10.10으로, 시각적 선호면에서는 유의수준 0.001에서 F 값 13.39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키가 커보이는 경우(4.225) 3.688)와 날씬한 경우(4.200) 3.588)는 비전문가가 평균값이 더 높음을 알 수 있고, 시각적인 선호에서는 전문가가 평균값(4.350) 3.588)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 시각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Arnheim<sup>14)</sup>의 연구와 Morgan<sup>15)</sup>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날씬해 보이는 효과

분산분석 결과 선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유의수준 0.01에서 F 값 4.93으로 시각적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에 제시한 평균값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디자인 D1과 D2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컸으며 디자인 D3와 D4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낮았다. 즉 평균값이 D1 > D2 > D4 > D3의 순으로 차례로 날씬하게 보이는 경향은 사각형이 길어보일수록 좁아보이는 상대적인 지각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T 체형에 있어서의 선은 가장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디자인 D1이 가장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나



Picture 4. 웨이스트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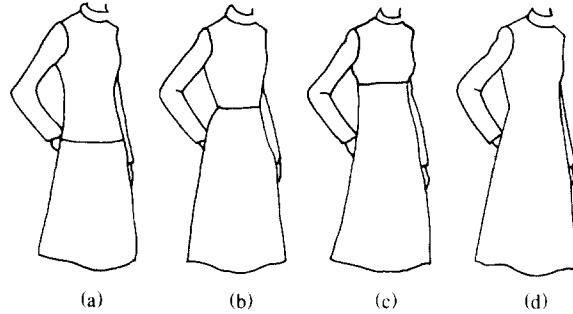


Figure 5. 요크선의 분할 위치에 따른 수직효과와의 차이

〈표 2〉 요크선 위치에 따른 실험디자인의 시각적 효과(A.V 체형)

실험디자인 No.		D1	D2	D3	D4	분산분석	
						전문성별	실험 디자인별
키 큰 효과	평균	4.800	3.925	3.500	3.625	13.17	8.04
	다중비교	A	B	B	B	***	***
날씬한 효과	평균	3.675	3.425	2.750	3.400	7.74	3.99
	다중비교	A	A	B	A	**	**
시각적 선호	평균	4.975	5.100	4.100	4.955	8.08	3.96
	다중비교	A	A	B	A	**	**

〈표 3〉 요크선 위치에 따른 실험디자인의 시각적 효과(S.T 체형)

실험디자인 No.		D1	D2	D3	D4	분산분석	
						전문성별	실험 디자인별
키 큰 효과	평균	4.725	3.625	3.125	2.850	7.50	19.34
	다중비교	A	B	C	C	**	***
날씬한 효과	평균	4.475	3.950	3.525	3.625	10.10	4.93
	다중비교	A	AB	B	B	**	**
시각적 선호	평균	4.450	4.475	3.975	3.625	13.39	3.84
	다중비교	A	A	AB	B	***	*

타났다.

다. 시각적 선호의 효과

분산분석 결과 선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유의 수준 0.05 에서 F 값 3.84로 시각적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에 제시한 평균값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디자인 D1, D2, D3가 시각적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디자인 D4는 시각적 선호가 낮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하체가 짧은 수 밖에 없는 키가 작은 체형에서는 디자인 D4와 같이 상체가 길어보이는 디자인은 키가 작은 체형의 의복에 적용될 경우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자인 D4



의 경우는 착시적인 면에서도 시각적인 선호면에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S.T 체형에 있어서는 착시적인 면과 시각적인 선호면에 있어서 디자인 D4는 가장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S.T 체형에서는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작고 뚱뚱한 체형

가. 키가 커 보이는 효과

분산분석 결과 선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유의수준 0.001 에서 F 값 17.22로 시각적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에 제시한 평균값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디자인 D1이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컸으며 디자인 D2와 D4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낮았다.

즉 평균값이 D1 > D3 > D2 > D4의 순으로 디자인 D1이 가장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면을 선으로 분할하여 두 개의 면을 나눌 때, 선의 위치에 따라 분할한 후 남는 세로선의 길이가 긴면이 분할한 후 남는 세로선의 길이가 짧은 면에 비하여 길어보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디자인 이론에서 이야기 하는 3:5의 비율을 이루고 있어서 인체를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는 보통 허리선(Waist line: 디자인 D3) 위치는 S.F 체형에서는 키가 커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디자인 D4는 의복에 적용하면 상체의 길이

를 강조하게 되어 키가 작아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디자인론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이용한 착시적인 면이 우수한 디자인은 S.F 체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와의 비교에서는 <표 4>에서와 같이 키가 커보이는 경우에는 유의수준 0.05에서 F 값 4.10으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날씬해 보이는 경우는 유의수준 0.01에서 F 값 7.97로, 시각적 선호면에서는 유의수준 0.01에서 F 값 8.99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키가 커보이는 경우(4.362 > 3.975)와 날씬한 경우(3.588 > 3.063)는 비전문가가, 시각적인 선호에서는(4.062 > 4.687) 전문가가 평균값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 시각적인 차이가 난다는 Arheim<sup>14)</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나. 날씬해 보이는 효과

분산분석 결과 선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유의수준 0.001 에서 F 값 9.52로 시각적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에 제시한 평균값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디자인 D1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디자인 D3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가장 낮았다. 즉 S.F 체형에서는 디자인 D3의 경우는 날씬하게 보이는 데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키가 큰 효과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디자인 D2, D4 였으나 날씬한 면에 있어서는 디자인 D3가 가장 부

<표 4> 요크선 위치에 따른 실험디자인의 시각적 효과(S.F 체형)

실험디자인 No.		D1	D2	D3	D4	분산분석	
						전문성별	실험 디자인별
키 큰 효과	평균	4.875	3.325	4.300	3.225	4.10	17.22
	다중비교	A	C	B	C	*	***
날씬한 효과	평균	4.000	3.300	2.600	3.400	7.97	9.52
	다중비교	A	B	C	B	**	***
시각적 선호	평균	4.775	4.700	3.950	4.075	8.99	4.12
	다중비교	A	A	B	B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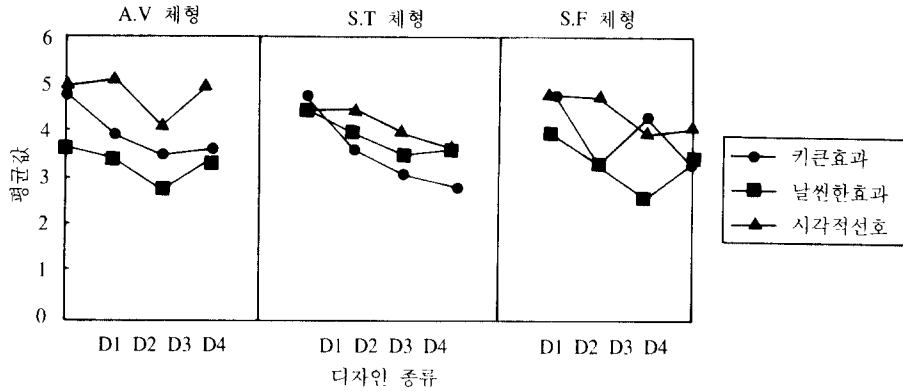


Fig. 1 요크선의 시각적 효과에 대한 세 체형의 비교

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날씬해 보이는 디자인이 요구되는 S.F 체형에서는 허리선 위치에 선이 있는 것이 부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다. 시각적 선호의 효과

분산분석 결과 선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유의 수준 0.01 에서 F 값 4.12로 시각적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에 제시한 평균값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디자인 D1, D2가 시각적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디자인 D3와 D4는 시각적 선호가 낮았다. 이는 허리선 위치의 선과 로우 웨이스트선은 S.F 체형의 의복에 적용될 경우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 (4) 선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3 체형의 비교

키 큰 효과에 있어서는 3 체형 모두 디자인 D1의 경우가 가장 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서와 같이 A.V 체형에서는 디자인 간에 착시적인 면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하이 웨이스트와 로우 웨이스트의 경우가 제 위치의 허리선에서의 위치보다 우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각적인 선호면에서는 류<sup>4)</sup>와 같은 위치가 가장 선호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착시적인 면이 가장 떨어졌던 디자인 D3가 시각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S.T 체형에서는 착시적인 면 즉 키가 커 보이는 디자인과 날씬해 보이는 디자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키가 커 보이는 측면에서는 A.V 체형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날씬해 보이는 측면에서는 디자인 D4가 A.V 체형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형적인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디자인 D4의 경우는 특히 상체를 강조하여 하체가 더 짧아 보이는 까닭인 것으로 생각되며, 키가 작고 그에 따라 하체도 짧은 S.T 체형에서는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F 체형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두 체형과는 시각적인 선호면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즉 키가 큰 효과에 있어서는 디자인 D2, D4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D3가 키가 큰 효과에 있어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시각적인 선호면에 있어서는 디자인 D3가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은 A.V 체형과 같았으나 앞의 〈표 3〉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Duncan test 결과는 같게 나타났으나 디자인 D1이 좀 더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키가 큰 측면에 있어서는 S.F 체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디자인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하이 웨이스트의 경우가 모든 체형에서 다 우수한 착시를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날씬한 효과에 있어서는 3 체형 모두 디자인 D1의 경우가 가장 날씬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자인 D3의 경우는 3 체형 모두에서 날씬한 효과에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날씬한 디자인을 원할 경우에는 허리선이 제 위치에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각적 선호에 있어서는 체형에 따라서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A.V 체형은 디자인 D3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S.T 체형과 S.F 체형에서는 디자인 D3, D4가 부정적인 면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결과를 기준으로 의복 구성과 디자인 시에는 체형에 적합한 디자인을 선택하여 의복 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론 및 요약

3 체형에 따른 선의 위치에 관한 시각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V(표준)체형에서는 큰 효과가 큰것은 디자인 D1이며, 디자인 D3는 날씬한 효과와 시각적인 효과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에 있어서는 착시적인 효과는 비전문가가, 시각적인 효과에서는 전문가가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구성시 큰 효과를 위해서는 디자인 D1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허리선 위치를 절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된다.

2. S.T(작고 마른)체형에서는 큰 효과는 디자인 D1이 날씬한 효과와 시각적인 효과에서는 디자인 D1과 D2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문성에 있어서는 착시적인 효과는 비전문가가, 시각적인 효과에서는 전문가가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구성시 큰 효과를 위해서는 디자인 D1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날씬한 효과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디자인 D1과 D2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3. S.F(작고 뚱뚱한)체형에서는 착시적인 효과는 디자인 D1이, 시각적인 효과에서는 디자인 D1, D2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다른체형에서는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디자인 D3가 큰 효과에서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문성에 있어서는 착시적인 효과는 비전문가가, 시각적인 효과에서 전문가가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구성시 착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디자인 D1위치를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디자인 D1과 D2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전반적으로 전문인이 비전문인에 비해 시각적인 효과에 대한 반응정도를 좀더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지각하는 능력의 차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Sailor(1971), "Perception of Line in clothing", *Percepture and motor skills*, 33(2), 987-990. 被服心理學, 東京, 光生館제인용, 神山進, 1984.
- 2) Baer, "Visual recall of dress design determined by perceptual sty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5), 292-303, 1979.
- 3) 이경희, 박정순, 김태경, "의복 디자인의 선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제 28권, 4호, 1990.
- 4) 류정아, "의복디자인의 선이 체형에 미치는 착시 효과",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8.
- 5) 박혜령, 이춘계, "의복디자인 구성선에 따른 색채의 착시효과", 복식 24호, p 205-216, 1995
- 6) 정삼호, 강혜원,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 디자인 선호 연구(1)", *한국의류학회지*, Vol. 15, No. 2, p 103-113, 1991.
- 7) 이경희,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2.
- 8) 박혜숙, 이명희, "서양의복구성", 수확사.
- 9) 小管啓子, "ストライフ°柄のイメシ"に關する基礎的考察", *纖維製品消費科學誌*, 31(1), 42-49, 1990.
- 10) Berlyne, D. E(1960), "Conflict arousal and curiosity", New York; McGrow hill, 94, 권영애(1986),

- “의복의 유행단계에 따른 지각반응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재인용.
- 11) Winakor, G.& Navarro, R.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4), 40-48, 1987.
- 12)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p.91.
- 13)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p.92.
- 14) Arnheim, R.(1966). “Arts and visual perception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권영애 (1986), “의복의 유행단계에 따른 지각반응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재인용.
- 15) Clifford T. Morgan, “A brief introduction to psychology”; 권기덕, 이종한, 김상기 공역, 심리학 개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p 267, 1985.